24차례 수술 이겨내고 광주로…재기 꿈꾸는 '희망 아이콘'

2016 희망을 쏜다 ❶ 감전사고 딛고 재활중인 노석훈 소방관

왼쪽 손목 잃고 한때 우울증…가족·동료 생각하며 극복

"내 삶은 행운의 연속…힘차게 일어나 받은 것 돌려줄 것"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첫 번째 행운, 한 손만 잃은 게 두 번째 행운, 아내를 만난 게 세 번째 행운, 동료 잘 만난 게…."

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한 손을 잃은 소방관은 자신의 삶을 행운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노석훈(39) 소방장, 그가 기나긴 서울에서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광주로 돌아왔다.

광복절 임시휴일이던 지난 8월14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금호동 빌라 옆 전신주에 있던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쓰러진 지 넉달여 만이다. 당시 그는 2만2000볼트 고압전선에 감전돼 서울 한전병원으로 옮겨져 지금껏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직후 들른 조선대병원에선 생존 확률과 사망 확률이 반반이라고 진단했었다.

그의 사고 소식에 광주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1200여명이 숨죽여 울었다. 감전을 막아주는 변변한 장비도, 고압전기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전신주에 올랐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24차례의 수술을 이겨내고 12월 중순 광주로 돌아왔다. 의료진과 동료 소방관들은 그의 생존과 빠른 회복세를 기적으로 여겼다. 노 소방장이 한전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유사한 사고를 겪은 4~5명의 근로자 대부분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노 소방장이 체력과 삶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회복도 빨랐다고 했다. 감전 사고로 왼쪽 손목을 잃은 그는 이전처럼 재난 현장을 누빌 순 없게 됐다는 생각에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이젠 마음을 고쳐먹었다.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일 말고도 교육훈련, 상황접수 등 소방관 직무는 다양하고 어느 하나 가벼운 임무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면서다.

사고는 찰나였다. 처음엔 물을 뿌려 벌집을 제거할까 생각했지만 사다리차에 직접 올라 잠자리채처럼 생긴 꼬챙이를 들고 직접 벌집을 따기로 했다. 벌집과 사람이 사는 빌라 거리가 10m도 떨어져 있지 않아 물을 뿌리면 자칫 성난 벌들이 시민들을 공격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벌집을 떼려고 채를 흔드는 순간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자신이 응급환자들을 돌보며 올랐던 그 헬기에 눕혀져 응급 후송됐다.

불 끄는 소방관을 가리키는 '경방'으로서 엄청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 꺼져가던 그의 숨을 되살렸다면 나머지는 가족과 동료의 헌신 때문이었다. 아내 이민정(36)씨는 사고 당일 직장에 사표를 내고 노 소방장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잃어버린 왼손이 돼줬다. 아들 현승(9)과 딸 현서(8)가 재잘거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서 빨리 일어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겠다'는 맘이 샘솟았다. 노 소방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1개월여간 교대로 병실을 지켜줬던 동료의 헌신도 큰 힘이 됐다.

불의의 사고로 노 소방장은 한 손을 잃게 됐지만 얻게 된 것도 많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m짜리 전신주의 꼭대기 전선에 2만2000볼트의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모든 소방관이 알게 됐고, 전기와 관련된 현장 출동시 한전과의 협업 체제도 구축됐다.

전체 소방관에게 전기안전 교육훈련을 진행하게 된 것도 노 소방장 사고의 여파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노 소방장 치료 과정에서 공론화됐다. 노 소방장의 경우 3500만원짜리 의수를 택했지만 실제 그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550만원에 불과했다. 큰 빚을 떠안지 않고 노 소방장이 치료를 받고 재기를 꿈꿀 수 있었던 데는 동료 소방관과 일반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한다.

노 소방장은 올 봄 업무 복귀를 목표로 재활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의 입에선 "너무 많이 (관심과 도움을) 받았다. 꼭 갚아드리겠다.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말이 계속됐다.

한 순간의 사고로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아니었다면 다른 동료가 올라갔을 테고 그랬더라면 아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내가 살아남은 것도 기적, 동료와 이름 모를 수많은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복귀를 꿈 꿀 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모두 기적,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벌집 제거 민원을 받고 지난 8월 전신주에 올랐다가 고압전선에 감전돼 왼손을 잃은 노석훈(39) 소방장이 지난 28일 광주굿모닝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그는 "올 봄 업무 복귀를 각오로 재활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성실한 사업가 행세…알고보니 결혼사기범

여성 3명에게 3억원 뜯어내…광산경찰, 원룸서 검거

광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A(여·36)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매장에 들어선 30대 남성과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A씨는 허황되지 않고 착실한 모습을 한 박모(33)씨에게 금새 마음의 문을 열었다.

박씨는 A씨가 과거에 만난 남성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운동복 차림의 수수한 외모, 낭비벽 없는 씀씀이, 안정된 직업과 가정환경…. 주문한 제품을 찾기 위해 매장을 방문할 때도 매번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다. 뛰어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172cm의 키에 다부진 체격으로 소탈하고 활동적인 모습이 맘에 들었다. 무엇보다 결혼 적령기를 지난 A씨에겐 그의 직업과 가정 환경이 안정적인 게 맘에 들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했다.

박씨는 A씨에게 자신을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익스트림스포츠팀 소속 선수라고 소개했다. 부모님은 현직 경찰공무원이고 자신도 경찰에 재직했으나 공무원 생활에 염증을 느껴 그만뒀다고 했다. 전남에 해당 브랜드 스포츠 매장과 헬스클럽 한 곳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인 고민은 더이상 없다고도 했다.

안정된 직업과 경제적인 형편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자꾸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대회가 끝나야 우승상금과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수천만원대의 대회 출전용 장비 구입비를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패러글라이딩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2000만원을 받아 갚겠다며 장비 비용 42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일부를 갚았지만 돈을 빌리는 일은 계속됐다.

두 사람이 지난 6월 초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 박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은 현금 1억2000만원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포함해 모두 1억8000만원.

그러나 상견례에서 자꾸 말을 바꾼 모습을 본 A씨가 박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면서 A씨의 실체가 드러났다. 박씨의 휴대전화 안에서 다른 여성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가면이 벗겨진 뒤에도 박씨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그건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급기야 지난 6월 A씨가 경찰에 박씨를 고소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전에도 결혼 적령기 여성들만 골라 수차례 사기를 친 전과가 있었고 스포츠용품매장과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출신이었던 것도, 부모가 공무원이란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박씨는 A씨와 교제 도중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성 B씨와도 연인 사이가 됐고 B씨에게도 같은 이유를 대며 1억1000만원을 빌렸다.

광산경찰은 지난 11월 7일 광주의 한 원룸에 은신 중이던 박씨를 검거했다. 당시 박씨의 곁에는 30대 여성 C씨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 여성만 3명으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1사단에 광주 6개 학교 깃발 휘날린다

지역 통합·화합 위한 호국보훈상징물 준공

향토사단인 육군 제31보병사단에 광주지역 6개 학교의 깃발이 휘날린다. 학교기를 게양한 학교는 광주중앙초, 광주동초, 광주공고, 조대부고, 숭일고, 살레시오고 등 6개교다.

31사단은 광주지역 출신의 항일운동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 등의 호국보훈 활동을 기리고자 호국보훈상징물을 준공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호국보훈상징물은 항일운동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배출한 광주지역 6개 학교의 학교기, 호국보훈활동이 기록된 동판, 참전용사의 학적부 사본과 당시 교과서·사진 등 전시물 등으로 구성됐다. 게양대는 부대 내 주도로의 태극기·무궁화 거리 끝에 2m 간격으로 설치됐다.

31사단은 한해 2만여명의 입영장병·가족·방문객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지역 통합과 화합을 위한 '안보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용사 이병연(83)씨는 "자칫 잊힐 수 있는 6·25 전쟁과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31사단과 모교인 조대부고에 고맙다"며 "학교기를 보니 6·25 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옛 전우들이 생각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권혁신 31사단장은 "호국보훈상징물은 소속 장병은 물론 부대방문객들에게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20여개 신고전화 7월부터 112·119·110로 통합

현행 20여 개 신고전화가 오는 7월부터 112·119·110 체계로 통합된다. 5월말부터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정부 구호서비스를 받는다.

지난 30일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긴급신고전화가 112와 119로, 비긴급 상담신고가 110으로 통합된다.

긴급한 범죄신고 번호는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112로, 재난·구조신고 번호는 119로 운영한다. 나머지 비긴급 신고는 110에서 통합 안내한다. 구호금과 생계비는 5월말부터 붕괴·해양오염·선박침몰 등과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에게도 지원된다.

다중시설 이용객의 재난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경마장, 박물관, 전시시설 등으로 12월에 확대된다. /연합뉴스

황산·염산 관리 허술 32개 업체 적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영산강환경청 14곳 고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황산이나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허술하게 관리한 업체 32곳을 적발, 이 중 14개 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제조·생산·운반하는 관내 업체 699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여 32개 업체가 저지른 4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중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1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단순 서류 기록 등을 허술하게 보존한 업체 18곳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개선명령·경고)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류 기록 및 보존 9건, 취급 시설 표지기준 6건, 취급기준 5건, 개인보호장구 착용·운반계획서 제출·변경허가 각 3건, 자체 점검·실적보고 위반 각 2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황산 등) 판매 2건, 기타 5건이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실시, 운반차량의 운반 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미성년 출연시켜 변태 성행위 방영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잇따라 적발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변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20대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방송 진행자)와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한 혐의로 O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새벽 4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일 자정께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한 뒤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연 대가로 A양에게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도 회원제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S모(51)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광양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기가바이트 분량의 음란물 수만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신씨는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단속을 피해왔으며, 회원들에게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묘 5048기 확인

일제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현지에서 숨을 거둔 한인의 묘는 총 5048기(基)인 것으로 정부가 최종 확인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는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벌인 '사할린 한인 묘 현황파악 사업'을 종료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인이 대부분 거주한 남부 사할린 지역의 67개 공동묘지를 조사한 결과, 한인의 묘는 모두 1만5110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부 사할린 외 다른 지역에는 한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이 가운데 강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묘는 5048기로 집계됐다. 전체 한인의 묘 가운데 전남이 본적으로 확인된 사망자 묘는 39기, 전북은 79기다.

앞서 위원회는 2011년 작성한 '사할린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 보고서에서 당시 사할린 거주 한인은 4만2000여명, 이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는 3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번에 최종 확인한 묘 5048기는 강제동원 피해자로 추정된 3만여명의 17% 선에 불과한 셈이다.

사할린으로 동원된 동포들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일본제철, 오지제지, 가네보 등 당대 일본 굴지의 기업이 운영하는 총 77개 노역장에 동원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40	달뜸	23:15
해짐	17:30	달짐	11:16

새해 일출 감상하세요

새벽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눈온뒤 갬	0/8	보 성	눈온뒤 갬	-2/8
목 포	눈온뒤 갬	2/8	순 천	눈온뒤 갬	1/9
여 수	눈온뒤 갬	2/8	영 광	눈온뒤 갬	-1/7
나 주	눈온뒤 갬	-2/8	진 도	눈온뒤 갬	2/8
완 도	눈온뒤 갬	2/8	전 주	눈온뒤 갬	0/7
구 례	눈온뒤 갬	-2/8	군 산	눈온뒤 갬	0/6
강 진	눈온뒤 갬	1/8	남 원	눈온뒤 갬	-1/7
해 남	눈온뒤 갬	1/8	흑산도	눈온뒤 갬	4/7
장 성	눈온뒤 갬	-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0.5~1.5
	먼바다(동)	서~북서	1.0~2.5	북서~북	1.0~2.5
	먼바다(서)	서~북서	1.0~2.5	북서~북	1.0~2.5

◇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높음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39	10:54
	18:10	23:31
여수	00:21	06:21
	12:47	18:52

◇ 주간 날씨

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3/8	-1/11	2/10	1/8	1/8	2/7	0/4

예비부부 한복이 너무 고와서…절도 40대 여성 뒤늦은 후회

쌍나팔

○…결혼을 사흘 앞둔 예비 부부의 예복인 한복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47)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한복점에서 주인(여·53) 씨가 가게 문을 열어두고 잠시 외출한 사이 마네킹에 걸려있던 450만원 상당의 한복 2벌을 몰래 가져간 혐의.

○…상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하고 한복도 되찾아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도와줬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한복이 너무 고와서 집에 두고 입어보고 싶은 맘에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돌아갈 한복이라면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라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